

사랑과 성 · 결혼과 성욕

◎ 사랑과 성

사랑과 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것'이라는 측면이다.

진화 과정에서 단순한 생식 하나만으로는 종의 생존에 충분하지가 않았다. 포유류에서 영장류로, 그리고 인간으로 진화할수록 어린 시절에 사망하는 확률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기간은 길어만 갔다. 인간은 신체적으로 아주 나약한 존재였고, 생식력도 다른 동물에 비해 떨어졌다. 우리 인류의 조상에게 이런 배합은 하나의 깨달음이었다.

하류동물일수록 환경변화에 대한 반응, 생존에 대한 반응이 유전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인간 유전자는 아주 연약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아주 유연했다. 만들어진 기성복과 같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대부분의 다른 포유동물보다 약 1년 정도 발달이 늦다. 이 1년 동안에 인간의 뇌 무게는 약 3배 정도 증가한다. 이 중요한 1년의 시기동안 아이의 머리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얻는 중요한 정보가 다량으로 입력되는 것이다. 다른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조숙하다면 그 머리가

너무나 커서 질을 통과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인간의 진화는 빠른 발달단계에 미성숙한 채로 태어난다.

이 나약한 아이는 돌보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보살핌이 필요한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불러보자. 이런 모자관계의 오르몬과 뇌의 신경전달물질과의 관계는 몇 가지가 알려져 있다. 여성오르몬인 에스트라디올은 여성의 전두엽에 작용해서 아이 돌보는 것을 증가시키고, 남성의 전두엽에는 반응이 없다. 아이가 젖을 빨면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이런 보살핌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음식과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사랑과 성에 대한 긴밀한 어머니 관계는 이렇게 모자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다. 모자관계나 남녀관계는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는 단순한 문화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인간이 직립을 하게 됨에 따라 성기가 앞으로 이동을 하고 인간의 고유한 특권인 대면위 즉, 서로 마주보고 성교를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보다 더 많은 피부접촉이 이루어지고 우각보다는 시각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능이 발달하고 언어가 발달함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신체적 접촉, 시각적인 즐거

움을 보다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자와 여자는 단순한 생기관의 집합체가 아니게 되었다.

발정기를 잃어버리고 직립하게 된 중요한 두 가지의 진화론적 과정에서, 다른 포유류들처럼 몇 번의 왕복운동만으로 섹스를 끝내고 자기 갈 길을 가는 남자, 수컷들을 붙잡아놓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그래야 수컷으로부터 음식과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애착은 수컷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새끼와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대개의 포유류 암컷들은 발정기에만 섹스를 받아들이고 수컷들에게 관심을 표현한다.

어떤 암컷들은 이런 성적인 수용성이 남들보다 긴 것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더 많은 음식과 보호가 제공되었을 것이다. 이런 암컷이 더 오래 살아남았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에게는 발정기가 없어졌을 것이다.

사랑에 빠지면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며,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뛰다. 이런 고전적인 사랑의 증상은 시각을 변동시켜 사랑하는 사람은 전 우주의 중심이 되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든다.

10만 명의 미국 여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만을 위한 신체적인 것이기보다는 상호간, 특히 상

대방을 위한 감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였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밀감, 파트너의 만족이였고, 그 다음이 오르가슴이였다. 남성들은 성이라는 것을 오르가슴을 목표로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반면, 여성들은 감정적인 진밀감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한다. 여성은 사랑을 얻기 위해 성을 주고 남성은 성을 얻기 위해 사랑을 준다고 할 수 있을까.

해

◎ 결혼과 성욕

마다 5월이 되면 고궁과 거리에서 먼 사포를 쓴 신부들이 보이고, 공양정사에는 짙고 건강에 보이는 신랑신부들이 가득 차 있다. 결혼은 왜 할까?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그 대답은 대개 남들이 아니까, 사랑하니까, 성적인 필요성, 경제적인 필요성, 혹은 외로워서 한다고 나온다.

60년 이후 서구에서는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결혼율이 오이려 늘었다.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성적인 필요성 때문이라고 대답한 여성 가운데 약 4분의 1 정도는 평생동안 단 한 명의 성적인 파트너를 가지는데 많은 남자들을 경험한 여자만큼 행복해 한다고 한다. 아니 4분의 3이나 되는 여성들이 한 남자 이상과 관계를 맺었다고 놀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서양의 통계이다.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미네소타대학에서 조사한 일이 있다. 결혼한 부부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점에서 큰 불만을 느끼고 이혼할 가능성이 큰 부부가 40%, 경제적인 이유로 그런대로 유지되는 부부가 14%, 많은 부분에 불만을 느끼며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는 부부가 14%로, 전체의 3분의 2가 결혼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점에서 만족한다는 나머지 32%의 부부 중에서도 3분의 1은 성적인 문제로, 또 3분의 1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와 있다. 결국 결혼한 부부 1백쌍 중에서 10쌍 정도만 별 문제없이 만족하며 사는 행복한 부부라는 얘기이다.

성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는 부부는 진밀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보통 사랑, 진밀감, 대화, 신뢰, 정직, 융통성, 유머감각, 성, 경제력, 성숙도 등이 꼽힌다.

명리학에서 제일 수준 높은 책으로 꼽는 [적천수(適天髓)]라는 책의 육진론(六親論) 첫 문구에 '부처인연속세례(夫妻因緣宿世來)'라는 구절이 있다. 결혼이란 이미 정해져 있는 인연이라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부부의 인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운명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관계가 좋은 부부의 사주는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결혼제도는 과거 로마오와 쥘리엣식의 결혼인 씨족간의 결혼(근대와 이전의 우리 나라도 해당)에서 변화하여 아버지가 딸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는 가족간의 결합으로 변했으며 지금은 개인간의 결합으로 넘어오는 단계이다.

[러브 스토리] 영화처럼 본인들이 알아서 배우자를 고르고 결혼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독신자가 늘어나고 결혼 안 한 것을 잘못이나 불행으로 여기는 커녕 오이려 때로는 높이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12세 이전의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면 부모가 처벌을 받는 미국에서처럼 말이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꼭 미국이나 우

리 나라에서와 같은 일부일처제가 좋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일부일처제(monogamy)는 일 부 다 처 제(polygamy), 일처다부제(polyandry)와 같은 결혼제도의 하나이고, 또 강한 유태교-기독교 전통의 영향일 뿐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진리나 규범, 또는 사회관습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 왜 결혼을 할까? 여자의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현재 미국 여성의 10% 이상은 그들의 남편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 또한 1960년 이후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다음부터 결혼은 오이려 늘었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럼 성적인 필요성 때문일까? 4분의 1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평생 동안 단 한 사람의 섹스 파트너를 가지는데, 많은 남자를 경험한 여자만큼 행복을 느낀다. 또 오하이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여자의 3분의 1, 남자 대학생의 4분의 1은 아직도 성교의 경험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성적인 필요성 때문에 꼭 결혼까지 해야 하느냐는 얘기이다.

외로워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결혼한다고 외롭지 않다는 보장이 있는가. 어쨌거나 46% 정도만 외롭거나 동료가 필요해서 결혼을 한다고 한다.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다.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하겠지만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 왜 결혼해야 하느냐는 문제만 놓고 봐도 시대는 많이 달라졌다. 이미 정

<편집자 주 : 이 원고는 설연옥 박사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sex-academy.com>)에 게재된 원고를 필자의 동의아에 실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02-512-1101)>